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향상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 예수님이 닮이다! 2012년 십자가의 일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12월

교회  
일정

2012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십자가의 일꾼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였으나 도리어 공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  
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  
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2~15)는 말씀이 이번에 세움 받은 모든  
일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절실합  
니다. 광명의 천사(고후 11:14)로 위장한 사탄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온갖 꾀계와 술수를 동원하여 제2의 가뭄 유  
다(눅 22:3)를 만들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  
갈 수 없느니라"(막 9:29).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대답이  
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2012년 교회 일꾼 명단은 별지 참조

7일(수) 정기당회

11일(주) 특별제직회(찬양예배 우)

18일(주) 은퇴자 시양(찬양예배) 및 공동의회(찬양예배 우)

23일(금) 성탄절차 찬양예배(금요일찬양집회)

25일(주) 성탄감사예배 · 2011년 제6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 2011년 추수감사 찬양예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지난 주일(20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더욱 은혜롭고 풍성했던 이유는 추수  
감사 찬양예배 때문이었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추수감사 찬양예배는 온 성도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  
을 선포할지라도"(시 107:22), 36개의 찬양대 중에 10개 찬양대의 특별찬양 순서 외에도 온 성도가 다 함  
께 찬양을 드렸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로 찬양을 드린 점이 특별했습니  
다. 쉽게 말해서 전교인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감사의 찬양  
을 올린 것입니다. 다 함께 드렸던 6곡의 찬양은 26개의 악기로  
편곡하여 수개월 전부터 연습하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온갖 악  
기를 동원하여 한 마음(빌 2:5)을 이루어 드린 추수감사 찬양  
예배에는 감사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이 감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가 되어 보혈로 증만한 삶으  
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추수감사 찬양예배에 대해 나눌, 본지 4면.

# BROKEN

*<sup>(1)</sup>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with the peopl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sup>(2)</sup>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 <sup>(10)</sup>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sup>(11)</sup>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Luke 5:1~11)*

In today's Bible passage we find Jesus preach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As He was standing by the lake the crowd pressed around Him. He saw two boats lying at the water's edge and decided to get into one of them. They were both empty because the fishermen had completed their day's work and were standing nearby cleaning their nets. The boat Jesus got into was owned by Simon, so Jesus asked Simon to row out a little way in order to allow Him to teach God's word to the crowd from the boat. Simon's boat became a pulpit. Although this Bible passage doesn't reveal the context of Jesus' sermon, it does offer us a powerful message about brokenness.

Jesus was broken from the crowd,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Lk. 5:3). Jesus used Simon's (called Peter) boat to preach the word of God for faith. After Jesus finished preaching He ordered Peter, "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Lk. 5:4). Peter was a professional fisherman. He had recently finished fishing with little results, so he wasn't in the best of moods. Jesus' command made absolutely no sense to him, and as such probably irritated him. He had already cleaned his nets, and he knew that there wasn't going to be any fish biting at this time. He responded to Jesus' order,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Lk. 5:5). He was probably thinking that Jesus was way off base, but out of respect for His authority he was going to do what He wanted. Oh, the wondrous things that take place when we respond to the Word of God with obedient faith!

The fishermen's nets became broken,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Lk. 5:6). Simon Peter and his crew had caught so many fish that they called the second boat over to help,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Lk. 5:7). All these fishermen had spent the night fishing without catching anything. They were tired. It was in their weakness that God used them, not in their strength. Whenever we become tired, even extremely tired, it's at that

time we have our greatest opportunity. Whenever we fail, we need to remember that it's not a factor if we listen to Jesus. If your goal seems impossible, it's at that time you should act in faith. So, next time when you are really tired go to work! Next time when you have doubts, practice faith because Jesus Christ is your Lord. Jesus knows what we need and when we need it. His power is limitless. His blessings cannot compare with any earthly circumstances.

Simon Peter became a broken man,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Lk. 5:8). His resentment and anger over Jesus' command for him to go fishing a second time, after not catching anything the first time, melted away. Even though Jesus asked him to do the impossible, he listened and did it without faith. Now he repents because he has realized that Jesus is Lord and he is a man of weak faith. Jesus warned the Ephesus church,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repen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Rev. 2:5).

Simon Peter and his partners, James and John, experienced a broken association,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Lk. 5:9~11). Peter, John, and James worked as fishermen their entire life, but now that association was broken. They no longer wanted it; they preferred to go with Jesus. They all quit the fishing business to be followers of Jesus. They departed from the pursuit of earthly things. What a great decision! No longer would their lives revolve around fishing for fish, but rather now everything would center on fishing for men. A man's soul is more valuable than anything earthly. Peter, John, and James threw away their boats for Jesus. They put their faith in Him for survival.

My dear friends, what have you left or surrendered for Jesus? Do you have any broken experiences? Please let Jesus make you a fisher of men. It's not hard to let go and follow Jesus when you know He is Lord. Amen. 🙏

# 깨어짐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계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 (3)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4)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1~11)



김성완 목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계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시는 동안, 무리는 서로 밀면서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 한 배에 오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시 배는 두 척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근처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그에게 노를 조금 저어 가서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몬의 배가 강대상이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설교를 하셨는지 그 상황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무리로부터 떨어졌다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떨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눅 5:3).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려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날은 물고기를 거의 잡지 못한 탓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그에게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을 것이며, 그렇기에 아마도 그 명령은 베드로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그물을 씻은 상태였으며, 지금 나가봐야 물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 그물이 찢어졌다

어부들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눅 5:6).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두 번째 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잡기게 되었더라”(눅 5:7). 어부들 모두가 밤새도록 낚시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힘을 때마다, 심지어 너무나 지칠 때야말로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패에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실패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

능한 목표가 놓여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그 때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로 힘을 때에도 일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심이 생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므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그 어떤 세상적인 상황과도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 찢어지는 인간

시몬 베드로는 깨어짐으로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눅 5:8). 첫 번째 나갔을 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 그가 품었던 분노와 성냄이 물처럼 녹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없이 행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

## 모임이 깨어진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사이의 어부로서의 협력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눅 5:9~11).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평생 어부로 함께 일해 왔지만, 지금 그 협력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고기 잡는 생업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의 추구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삶을 맴돌며 살아가지 않고, 사람을 낚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세상적인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버려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깨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제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ㄴ

## 2011년 추수감사 찬양예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주께 영광. 산만한 중에도 교회학교까지 참여함이 온 성도가 성가대원임을 나타냈다. 하나 된 충현교회 화이팅! 주님만 찬양합니다. 교회란(집사, 6교구)

♫ 금요찬양집회 시간이 온전히 찬양으로 드러진 것이 제겐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직접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에서 성도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1:1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핸드벨로 찬양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추수찬(대학부)

♫ 모든 악기, 준비 된 찬양으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추수감사 찬양예배에 찬양 드리고 싶어 준비한 오키나와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죄인 된 모습과 이 죄인을 주님 자녀 삼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김석영(권사, 7교구)

♫ 부족하지만 악기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 했어요. 임태영(청년1부)

# 온 성도가 드린 감사 찬양의 하모니!

## 2011년 추수감사 찬양예배

♫ 유아부에서부터 에바다까지 부처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찬양 속에서 기쁨과 감의 연주 실력이 부끄럽지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교회를 감사드리고 다윗이 춤추며 소고 치며 감사했던 모습을 생각하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옥련(권사, 12교구)

♫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기타 등등을 해서 좋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오보에로 찬양했어요. 유자림(초등2부)

♫ 전 교인의 찬양축제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좋았고 은혜로웠습니다. 플롯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 배가 되었습니다. 김하은(대학부)

♫ 감사의 계절에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온 성도가 찬양하니 하 이 것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풀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권경애(권사, 14교구)

♫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준비는 했지만 막상 내 실력으로 악기를 연주하려는 것을 회개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펫으로 찬양을 했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연상하며, 감사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 천상에 올라 포일 것을 기대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김태식(장로, 18교구)

♫ 감동이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저의 악기 소리는 없었고 오직 우리의 악기 소리, 찬양 소리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순을 간절히 마음으로 연주하였습니다. 찬양을 함께 하신 분들을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찬욱(안수집사, 17교구)

♫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나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영육을 지켜 주심을 감사하며 몸 된 충현교회에 허락하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허만선(장로, 5교구)

♫ 목 끝까지 올라오는 감동을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온 성도의 손에 들린 악기로 그동안 연습한 것을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김하경(권사, 15교구)

♫ 저는 트롬본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전 교인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은혜로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하였습니다. 김영석(집사, 13교구)

♫ 이런 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나란 인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걸 제치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역시 주님은 예배를 통해 한 없는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것과 항상 함께 해 주신 감사드리며 부족한 바이올린 실력이지만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임원지(고등부)

♫ 오늘 천국에 모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간구하며 소리 높여 전달 될 수 있도록 힘써 부르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홍선기(안수집사, 6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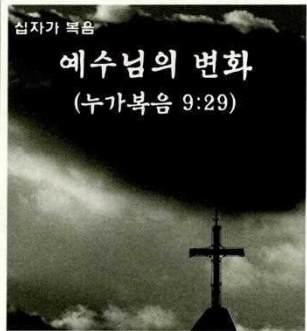






십자가 복음

## 예수님의 변화 (누가복음 9:29)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일에 대하여 마태(마 17:1~8), 마가(막 9:2~8), 누가(눅 9:28~36)는 복음서에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누가는 다음과 같이 한 장면을 기록하였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눅 9:29).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의 말씀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 ● 언제 어디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변화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누가는 생명의 복음(눅 9:23~27)을 전하신 후 8일 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밝혔다(눅 9:28).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말씀을 마치신 후 6일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밝혔다(마 17:1; 막 9:2). 2일의 시간 차이는 당시 예수님이 올라가신 높은 산(헬몬산, 2815m)은 상당히 높은 산이었기에 정상 근처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 차이로 본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피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 ●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변화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 가시라와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고백하였다(눅 9:20; 마 16:16; 막 8:2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받은 메시야였다. 이와 같은 길을 막아 선 베드로(마 16:23)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화산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변화산의 사

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의미한다.

### ● 변화 사건이 마지막이며, 중요한 증거다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마지막 증거였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눅 9:27)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28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가복음 9:1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능으로 입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다. 이와 같이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철없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랍고도 중요한 마지막 증거를 똑똑히 보았다. 이 증거를 스데반은 순교(행 7:56)하면서 보았고, 바울도 루스데라에서 돌아 맞아 거의 죽었을 때(고후 12:1~4) 보았다.

### ● 이 변화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변화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경고하셨다(눅 12:40, 46).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셨다(막 12:32~33).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변화산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이다(마 24:44).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옷이 희어진 것처럼 우리도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하늘의 옷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흰 색일 것이다(막 16:5; 행 1:10; 계 3:4). 흰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고후 4:10). 이제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마치 죽었던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또한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왕하 2:11)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도 할 것이다(고전 15:51~52). 변화의 순간에 구원과 멸망의 두 갈래 길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속량이 없다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보혈로 말미암은 속량이 있다면, 예수님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아멘.

### 메시아의 죽음 99

## 말씀이 이루어짐 : 제자들이 떠나다(요한복음)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없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요 18:8~9). 그런데 두 명의 기자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떠나는 상황을 예수님이 직접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그리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는 말씀이 그 증거이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홀로 지시기 원하셨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없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홀로 걸으셨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지시기에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abou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from)의 복된 소식(Good News)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은혜의 엄숙한 선지이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성경대로’로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고전 15:3~4). 따라서 당시 켄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배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셨

다(요 16:2, 32). 심지어 가롯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은 조율하셨다. “조작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단다”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요 13:27).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요 17:8).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요 13:18, cf. 창 3:15, 시 41:9). 따라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취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4:6).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에 세상의 것을 섞어 버린다. 결국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여 헛갈리게 된다. 복음은 세상의 것들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선포할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요 17:12)이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있다. 제자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 속에 놀라운 신비와 은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딤후 1:10).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더 이상 헛갈리라고, 고민된다고, 어렵다고, 생각해보았다고 하지 말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아멘”(고후 1:20) 하자. 제자들이 떠날 길을 조율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도록 완전히 항복하자. 아멘.

새가족양육부 소로자

##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 역삼동에 이사한 뒤 교회를 찾던 중 중연교회에 한 번 나갔는데, 주일 설교와 찬양에 은혜를 받아 새가족양육부에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 십자가로 인해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 (한영애)

✠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지방에서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의 추천으로 중연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일주일간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김연희)

✠ 양육 7주라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 아플 때 이마를 짚어 주시던 예수님, 남들은 다 버리고 그냥 놔두어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소금과 빛과 향기로 나에게 늘 기도로 인도하시는 새 가족부 선생님을 만나 분반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삶에 도움을 받았다. 나의 삶에 늘 기쁨이 생겼다. 깨어 있어 믿음으로 부지런해졌다. (홍예진)

✠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내 의와 욕심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기쁘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며, 나의 기쁨과 소망이시다. 그동안의 삶은 율법적으로 산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기를 기도한다. (이화진)

✠ 학업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녔던 중 직장 동료의 인도로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다.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찾았다. (김경보)

✠ 친구의 전도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구원자,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교회에 나온 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평온해졌다. (마지윤)

✠ 예전부터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다치지 못하다가 언니와 함께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인도자이시다. 교회 생활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과 항상 먼저 주셔서 감사했다. (박미진)

전도  
편지

### TO. 오늘도 세상에서 싸우느라 지친 그대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을 따뜻하게 해 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예수님'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외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 많지만 우리의 생

명,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문득문득 느껴지는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내 속

음의 문제들은 세상의 즐거움 것들로써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

님이 부르실 때에 속히 오세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주저함 없이

“Yes”입니다. 삶의 무게, 나의 죄들, 세상이 주는 힘들이 없는 천국의 열쇠,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와 함께 Yes를 외쳐 보아요. 예수님이 최선입니다!



### 십자가의 길

## ‘그 길’

그리스도의 일꾼이 걷는 길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지치며 싫증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단순히 듣고 순종할 때  
그 길은 기쁨과 감사로 넘칠 것이다.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11월 14일(월) ~ 11월 21일(월) | 13교구 2팀 | 조운선 |
| 11월 14일(월) ~ 11월 22일(화) | 16교구 3팀 | 김세환 |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12월 2일(금) ~ 12월 10일(월) | 3교구 2팀 | 윤순규 |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연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교구 | 인도자 |
|------|-----|------|----|-----|
| 2987 | 김지민 | 영아부  | 3  |     |
| 2988 | 김도근 | 양육반  | 6  | 박철구 |
| 2989 | 이호연 | 중등부  | 9  | 최숙진 |
| 2990 | 김정훈 | 양육반  | 3  | 김영신 |
| 2991 | 박혜민 | 중등부  | 13 | 강요인 |
| 2992 | 박유선 | 중등부  | 12 | 한현식 |
| 2993 | 박선중 | 중등부  | 12 | 류홍희 |
| 2994 | 나경희 | 양육반  | 20 | 최미자 |
| 2995 | 유선희 | 고등부  | 4  | 이경원 |
| 2996 | 박순현 | 대학부  | 12 |     |
| 2997 | 홍영표 | 양육반  | 11 |     |
| 2998 | 서지연 | 초등2부 | 7  | 류자원 |
| 2999 | 정준수 | 양육반  | 19 | 조복순 |
| 3000 | 강진나 | 양육반  | 2  | 강혜경 |
| 3001 | 박형근 | 양육반  | 16 | 홍미화 |
| 3002 | 정세연 | 중등부  | 3  | 김이석 |
| 3003 | 이진호 | 중등부  | 1  | 김이석 |
| 3004 | 김지혜 | 고등부  | 4  | 김봉경 |
| 3005 | 강민정 |      | 15 | 함화자 |
| 3006 | 박순진 | 양육반  | 1  |     |
| 3007 | 성다윤 |      | 1  |     |
| 3008 | 성다연 |      | 1  |     |
| 3009 | 이명자 | 양육반  | 11 | 이수현 |
| 3010 | 김재웅 |      | 9  | 박수진 |
| 3011 | 김기순 | 양육반  | 4  | 이종준 |

## 교회소식

## Copyright © 2011 추원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